

한중 항공기분과위원 만찬

협회는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 개발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대표단과 한국대표단을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 4월 17일 조선히otel 라일락룸에서 개최된 동 만찬에는 항공기분과위원 대표단과 회원사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쇄신위원회 헬기운항건 건의

협회는 부정기항공사업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민간헬기 운항 활성화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4월 27일 행정쇄신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국내 육로교통 체증의 심화로 인한 대체 교통수요와 화재진압, 응급환자 수송, 긴급구난구조, 산림방제, 공중촬영, 교통통제및 감시등 헬기운항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 84대의 평균 운항율은 10%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의 경제, 문화 수준으로 볼 때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일례로 일본의 헬기 보유대수는 1,100여대에 이

르며 필리핀도 11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헬기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첫째 이유는 안보상의 문제로 운항을 심각하게 제한한 정부규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지역의 비행허가를 얻으려면 운항 10일전에 수도방위사령부에 운항신청을 해야하며 청와대에서 반경 3.7Km 이내 구역을 비행하려면 추가로 청와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헬리콥터는 원래 아무데나 착륙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정된 헬기장 외에는 착륙이 금지되어 있다. 결국 헬기장을 각 요소마다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근교 주요 교통거점에 헬기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두번째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헬기운용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송전선 및 선로감시, 산림방제, 교통통제, 긴급구난구조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운항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예산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민간 헬기운항사업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국방외의 분

야에 운용하고 있는 헬기는 산림청 18대, 경찰청 16대, 시도소방본부 8대등 모두 42대에 이른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가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의 내용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1. 정부종합청사와 국회간 헬기노선 개설
2. 긴급구난구조및 응급환자 수송용 헬기운항 개설
3. 정부규제 완화
4. 서울지역 주요거점내 공용 헬기장 건설
5.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헬기운항 민영화

세계화 추진사례 당선

통상산업부가 주관하는 '세계화추진 우수기업 사례발굴' 사업에 우리협회가 추천한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동인산업이 전략적제휴(삼성항공, 대우중공업), 경영혁신(대한항공), 동인산업(고유상표디자인)부문에 각각 당선되었다.

전 산업 부문에서 5개부문 15개 업체가 당선되었는데 그중에서 항공우주분야에서 3개부문 4개업체가 당선되었다.

회원사 상호방문 실시예정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 회원사 상호방문이 6월중 실시된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상호방문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및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협조분위기 조성과 기술정보교환 및 부품국산화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상호방문은 생산및 기술개발, 구매, 영업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방문단은 산업현장을 견학하고 생산공정, 구매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인 6월 7일에 서울의 천지산업과 밀양의 한국하이바를 방문하고 둘째날에는 창원의 기아기공, 삼성항공, 통일중공업, 대우중공업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셋째날에는 김해의 대한항공과 창원의 기계연구원을 방문하며 마지막날에는 사천의 삼성항공과 두원중공업을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상호방문 셋째날인 6월 9일에는 기계연구원에서 '항공기 부품산업 국산화 진흥'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를 실시하여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연계한 항공기 부품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각 회원사에서 1-2명

씩 파견할 경우 6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개인당 참가비는 10만원 정도로 협회에서 비용의 50%를 부담키로 했다.

항공기부품 국산화 진흥 세미나 개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본격추진에 대비하여 항공기 부품의 국산화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6월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창원 기계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 세미나는 회원사 상호방문 기간중 실시되는데 10개주제의 발표후 질의응답및 토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정된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부품 국산화 시책 (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과 이원걸 과장)
- Offset 프로그램 절차소개 및 발전방향 (국방부 조달본부 김갑석 과장)
- 항공기 부품국산화 진흥방안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조진수 교수)
- 중형항공기 부품국산화 추진전략 (삼성항공)

- 항공기 부품 설계개발과 FAA인증 절차 (대우중공업)
- 대형 민항기 부품개발 및 국산화 (대한항공)
- 엔진부품 국산화 방안 (항공우주연구소 이대성 박사)
- 보기부품 국산화 방안 (인하대학교 박춘배 교수)
- 소재부품 국산화 방안 (기계연구원 김학민 박사)
-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방안 (한국로스트왁스공업 장세풍 사장)

임직원 춘계 체육대회 실시

협회 임직원 체육대회를 지난 5월 6일 실시했다. 중형항공기사업조합 사무국과 연합으로 실시된 이번 춘계 체육대회는 불령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기획관리부가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별로는 김연 기획과장이 최고득점을 기록했다.

6개협의회 개편완료 1차회의 현안토의

협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총6개 협의회를 열고 각 협의회 임원선출및 기초협의를 마무리 했다. 특기사항으로는 전자보기협의회를 보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초경량항공기협회의회를 신설했다. 전자보기협회의회를 보기협회의회로 개칭한 이유는 전자보기협회의회가 전자부문을 포함한 항공기 보기 전체를 의미하는데 보기중에서 전자보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때문이다. 각 협회의회의 임원사는 아래표와 같다.

각 협회의회의 임원사 명단

협회의	의장사	부의장사	간사사
기체협회의	대우중공업		두원중공업,협회
우주협회의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협회
보기협회의	한화기계		LG정밀,기자기공,협회
소재협회의	한국로스트웍스		한국화이바,삼성공업,협회
엔진협회의	삼성항공		한국로스트웍스,협회
초경량항공기협회의	신라항공		협회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 실적

1/4분기동안 항공기및 동 부품에 대한 수입추천및 관세감면 검토 실적을 집계한 결과 수입추

천은 258건에 총4억6천5백만원, 관세감면은 213건 1억7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당분기 항공기 도입실적은 다음표와 같다.

원제기 및 조립부품의 수입품목

수입자	원산지	제 작 사	기 종	수량	시기
마룡	미 국	Fisher Flying Products, INC.	Super Koala외 4종	5대	95. 1
인천시	미 국	Bell Helicopter Textron	Bell-230	1대	95. 1
스카이맥스	프랑스	S.M.A.N	Petrel	2대	95. 1
고려항공	미 국	Keuthan Aircraft	Buccaneer	4대	95. 1
대한항공	미 국	Boeing	B747-400	2대	95. 8
신라항공	미 국	Quick Silver Enterprise INC.	GT-500	16대	95. 2
동양노즐	프랑스	Cosmos	Bid-15A외 3종	11대	95. 2
포항공제철	미 국	Sikorsky Aircraft	S-76B	1대	95. 7
경원철	미 국	Bell Helicopter Textron	Bell-412EP	1대	95. 7
신원항공리리스	러시아	Kumertau Aircraft Production	KA-32T	4대	95. 2
경상북도형	러시아	Kumertau Aircraft Production	KA-32T	1대	95. 2

KCDC News

제1차 조합원사 실무자회의 개최

중형항공기조합은 5월 16일 지분참여자 15개사가 모인 가운데 조합원사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1차 실무자회의로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도 이와같은 실무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조합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지분참여사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형항공기 설계센터 개소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내 설계센터(ECKC)가 5월 18일 문을 열었다.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에 위치한 동 설계센터는 7개분야에 총 54명으로 조직되었다. 각사별로는 삼성항공에서 24명, 대우중공업에서 14명, 대한항공에서 14명, 현대기술개발에서 2명씩 파견했다. 이 설계센터에서 해외 공동개발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국제합작회사의 공동설계팀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형항공기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

중형항공기사업조합은 지난 4월 15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 회계처리규정을 통과시키고 사무국 운영비 예산안 심의 의결했다. 그외에 현대기술개발 김용문 부사장을 심의위원에 추가선임하고 한국화이바의 조합원 신규가입을 의결했다. 조합원 신규가입은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